코스피 또 연중 최저점···광주·전남 투자자 위축

5월 주식거래 석 달 만에 7조원 선 아래로…전달비 12.3% 감소 외국인 자금 5개월 연속 이탈…지역 투자자들 삼성전자 투자 1위

경기 불황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'스태그플레 이션' 우려 속에서 13일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 치로 내려앉아 지역 주식 투자자들도 불안한 나날 을 보내고 있다.

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5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처분하면서 광주·전남 주식투자는 위축되고 있다.

(3.52%) 내린 2504.51에 장을 마쳤다.

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.36포인트

이는 연저점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종가 기준으 로 2020년 11월13일(2493.97) 이후 가장 낮은 수 준을 기록했다.

이같은 부진은 지난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(연 준)가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올리면서 '원·달러 환율 인상'→'원화 약세'→'외국인 주식 매도'→'주 가 하락'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 다. 오는 15일(이하 현지시간) 열리는 연방공개시 장위원회(FOMC)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.5% 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.

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외국 인 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.

경기 불황 말기에 금리를 낮춰 늘어난 시중의 유 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 주가가 상승하는 '유동성 장세'가 마무리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지배적이다.

1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'5월 광 주·전남 주식거래동향'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·전남 주식거래대금(코스피+코스닥)은 6조4695 억원으로, 전달(7조3746억원)보다 12.3%(-9051

지역민들의 주식투자가 9000억원 넘게 빠지면서 지난달 주식거래대금은 석 달 만에 다시 7조원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.

지역 주식거래대금은 2월 6조825억원에서 3월 7조7063억원으로 증가한 뒤 4월 7조3746억원, 5 월 6조4695억원으로 두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

지난달 지역 주식거래대금은 전달보다 12.3% 감 소했는데,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(6.2%)의 2배 수

지난달 광주·전남지역에서는 코스피시장에 대한 투자 위축이 두드러졌다.

광주·전남 지역민들의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 은 3조5600억원으로, 전달(4조2500억원)보다 16.2% 감소했다. 코스닥 거래대금은 4월 3조 1200억원에서 지난달 2조9000억원으로, 7.1% 줄

광주·전남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 비중은 지 난달 0.79%로, 전달(0.84%)보다 0.05%포인트

증시 불안 속에서 지역 투자자들은 '국민 주식'이 라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. 외 국인이 연일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하락한 주가를 역이용한 것이다.

지난달 광주·전남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주식 거 래대금은1632억원으로, 전달(2192억원)보다 25.5% 감소했지만 이 종목은 두 달 연속 지역 거래 대금 1위에 올랐다.

한편 지난달 광주·전남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(16개사)에서는 전달보다 늘 고 코스닥(21개사)은 감소했다.

코스피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전달보다 0.2% (322억원) 증가한 20조6988억원을 기록했다.

이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점쳐지면서 한국전력 이 적자를 만회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

한국전력 시총은 전달보다 1.1%(1604억원) 증 가하고, 다스코 66.2%(540억원↑), 화천기공 2.0%(15억원 ↑) 등도 시총이 늘었다.

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

2504.51 (-91.36) ➡ 코스피

코스닥 828.77 (-41.09)

금리(국고채 3년) 3.514 (+0.239)

👚 환율(USD) 1284.00 (+15.10)

반면 지역 코스닥 상장사들의 지난달 시총은 2조 7986억원으로, 전달보다 4.1%(-1202억원) 감소

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면 서 원가 부담이 커진 고려시멘트 시총은 전달보다 22.1%(-354억원) 감소했고, 대한그린파워(-19.0%), 서산(-16.8%) 감소율도 컸다. 서암기계 공업(13.4%↑)과 피피아이(6.3%), 우리로 (4.5%) 등은 시총이 전달보다 증가했다.
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

주방·홈패션 혼수 웨딩 특집전

㈜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1층 행사장에서 '주방·홈패션 혼수 웨딩 특집전'에서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 식기를 선보이고 있다. 오는 19일까지 빌레로이앤보흐, 포트메리온, 레노마홈, 클라르하임 등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%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대별로 사은품이 주어진다.

광주은행, 지역 청년 위한 '연 5% 적금' 출시

'전남청년 미래적금' 1만좌 한정 1년제 월 1만~20만원 자유 적립

광주은행이 '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' 출시 효과 를 극대화하고자 최근 '전남청년 미래적금'을 내 놓고 1만좌 한정 판매에 들어갔다.

적금 가입 대상자는 광주은행이 전남도와 협업해

출시한 '1st-Y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' 고객이다. 적금은 1년제로 가입 가능하며, 월 1만원부터 최 고 20만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기본금리 연 3.0%에 우대금리 최고 연 2.0%포 인트를 제공해 최고 연 5.0%의 금리를 받을 수

상품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 공에 동의(0.5%포인트)하거나 적금 가입기간 동

안 광주은행 신용(체크)카드 100만원 이상 사용 하면 연 1.0%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다. 또 원금 기준 200만원 이상 만기 해지할 때 연 0.5%포인 트 금리가 주어진다.

최근 출시된 '1st-Y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'는 전남 청년의 삶의 질과 문화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.

광주은행은 오는 9월 말까지 카드 이용 고객 중 바우처 지원금액(20만원) 외 10만원 추가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.
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가뭄 심각···섬진강·주암댐 저수율 비상

수자원공사 비상대책회의

한국수자원공사 영·섬유역본부는 13일 기준 농 업용수 등을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평년 대비 섬진강댐 80%, 주암댐 73%를 나타내고 있 다고 이날 밝혔다.

한국수자원공사는 박재현 사장 주관으로 이날 대전 본사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응을 위 한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.

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34개 댐(다목적댐 20 개·용수댐 14개) 유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예년 55% 수준으로, 최근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가뭄 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. 올 들어 주암댐의 강 수량은 예년 60% 수준이다.

보령댐과 운문댐, 횡성댐은 가각 가뭄단계 '경

계', '심각', '관심' 수준에 진입한 상황이다.

광주•전남지역에 속한 섬진강댐과 주암댐 역시 이같은 가뭄이 계속되면 가뭄단계 진입이 우려되 는 상황이라고 영·섬본부는 설명했다.

영·섬본부는 현재 생활·공업·농업용수 정상공급 에 문제없는 상황이나, 저수율이 예년보다 낮은 만 큼 가뭄 상황을 관찰하면서 선제적으로 댐 저수량 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
박재현 사장은 "예년보다 적은 강수량이 이어지 고 있는 만큼, 국민생활이나 산업에 필요한 물 사 용에 차질 없도록 가뭄 해소 시까지 전사적 총력대 응이 필요한 시기"라며 "가뭄대응은 특히 협업이 중요한 만큼, 정부·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, 댐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"을 당부했 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광주·전남 건설투자 증가

광주 109%·전남 42.7%↑

광주·전남지역 4월 중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'최근 광 주·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'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광주 109.0%·전남 42.7% 증가했다.

광주에서는 상업용•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착 공면적이 증가했으며, 전남은 주거용 신규 착공이

반면 건축허가면적은 광주 15.1%·전남 62.0% 감소했다.

4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광주지역이 2호로 전달과 동일했다. 전남 미분양 아파트는 2371호 로, 전달(2410호)보다 1.6%(-39호) 감소했다.

같은 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전 달보다 각각 0.2%, 0.1% 상승했다.

전남 4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전달보다 모두 0.1% 하락했다.

한은 관계자는 "4월 중 광주지역 주요 경제지표 를 보면 제조업 생산과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나, 소매판매는 증가로 전환되고 수출은 증가세를 지 속했다"며 "전남은 제조업 생산 및 수출, 취업자 수 는 증가세를 지속했으나, 소매판매는 감소 지속했

/백희준 기자 bhj@

장성 토지(매매 분양)

광주에서 **20**분(6M도로접),

장성댐 (호) 2분,

장성 IC. 5분

총 1760평 (150평, 200평, 500평, 분할가능) [전원주택,물류창고,주말농장,별장,투자적합]

상무지구(상가매매)

중심상업지역(메가박스앞)

시세 -> 9억

급매가 -> 6억

(총분양 140평) (보 3천, 월 350만, 융 3억5천)

(사무실 리모델링함,빠,유흥,모든업종가능, 즉시입주 시비없음)

다"고 설명했다.

1) 특수반모집 -> **유치권**, 법지, 지분, NPL(전문)

경매교육 [^{특수전문반} 기초반,중급반

2) 전문반모집 -> 직업으로 하실분 (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)

3) 기초반, 중급반, 특수반 => 평생 회원반

광산구 삼거동(임야)▶감정가 3억9천 -> 최저가 1억4천 (5/4) 동구 지산동(농지)▶ 감정가 4억1천 -> 최저가 4억1천 (5/4)

북구 생용동(근린주택)▶ 감정가 3억 -> 최저가 1억 7천 (5/12)

광주 북구 용봉동(근린상가)▶ 감정가 32억 -> 최저가 22억 (5/12)

서구 화정동(주택)▶감정가 3억7천 -> 최저가 2억7천 (5/18)

북구 용봉동(주택)▶감정가 2억5천 -> 최저가 1억1천 (5/26)

동구 운림동(근린주택)▶감정가 6억4천 -> 최저가4억5천 (5/26)

담양군 대덕면(임야)▶ 감정가 5억2천 -> 최저가 3억7천(5/11)

담양군 창평면(주택)▶ 감정가 2억5천 -> 최저가 1억7천 (5/18)

보성군 벌교읍(근린시설)▶ 감정가 130억 -> 최저가 31억 (5/23) 목포시 상동(근린상가)▶ 감정가 6억8천 -> 최저가 4억8천 (5/23)

충남 서천군(근린주택)▶감정가 9억2천 -> 최저가 2억2천 (5/3) 전북 군산시(근린상가)▶감정가 25억 -> 최저가 4억2천(5/23)

010-6670-9800